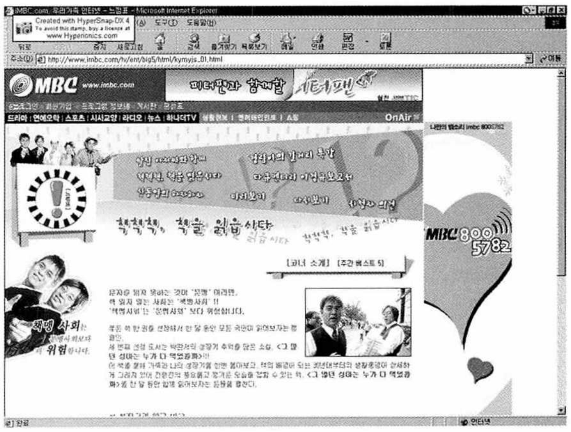
〈!느낌표〉를 둘러싸고 논란 뜨겁다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 강구해야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비판기사가 실리면서 〈!느낌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의 반응이 '침소봉대'라는 역 비판도 강하게 일고 있다. 사진은 〈!느낌표〉의 인터넷 홈페이지.

출판계에서 MBC 오락프로그램 〈!느낌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기에는 신문사들이 한몫 하고 있는데, 최근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느낌표〉의 한 코너인 '책 책책, 책을 읽읍시다'에 대한 비판기사가 실렸다. 그동안 〈!느낌표〉에서 소개된 《괭이부리말 아이들》(김중미, 창작과비평사)과 《봉순이 언니》(공지영, 푸른숲)가 각각 60만부 이상 팔리면서, 해당 제작업체와 서점계뿐 아니라 출판계 전반을 활성화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위의 두 신문이 〈!느낌표〉가 책을 희화화하고, 베스트셀러를 배출하는 등 대규모 반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묶여 있다고 비판에 나선 것이 논란의 진원지다.

언론은 지나친 엄숙주의 버려야

하지만 오히려 이런 일부 언론의 반응이 '침소봉대'라는 역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경향신문》 책마을의 김민아 기자는 "오락프로그램에서 오락 프로그램다운 문법을 보여주는 것을 문제삼을 수 없다"며 오히려 "오락프로그램도 책을 다룰 수 있다는 방송의 신 기능을 평가하고 싶다"고 말한다. 출판칼럼니스트 표정훈씨도 "요즘은 지방 문구점도 방송에 나왔던 책을 비치해놓고 판다"며 〈!느낌표〉가 서점에는 생전 가지 않는 새로운 독자층을 출판시장에 끌어들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느낌표〉에 진행자로 출연중인 김재윤 교수(탐라대 출판미디어학과)는 "기존 독서프로그램의 시청자가 책 읽는 사람들이었다면, 〈!느낌표〉는 책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을 책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느낌표〉의 독자적인 공로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다.

출판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느낌표〉가 잘 팔리는 책만 소개해 출판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소개된 책들을 인쇄하느라 다른 책의 제작일정이 늦어진다, 대중소설과 독자층이 겹치면서 판타지 및 역사소설을 펴내는 출판사들이 타격을 입는다는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이런 소리들을 풍문으로 일축하면서 "최근 〈!느낌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독자'의 입장을 쉽게 간과하고 있다. 당장 지하철을 타보더라도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어쨌든 화제의 중심에 책이 놓인다는 점, 소개도서가 기존 밀리언셀러 소설들보다는 질적으로도 훨씬 우수하다는 점, 무엇보다 소규모 도소매상들이 '살길'을 찾았다는 점" 등은 분명히 방송의 공로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판타지를 비롯한 대중소설을 주로 펴내는 황금가지의 장은수 편집장은 "대중소설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낭설"이며 오히려 "책을 잘 읽지 않는 10대와 40대 이상이 독서인구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해 독자층이 중복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전국민 독서운동과 연계하는 방안 모색해야

〈!느낌표〉가 출판계에 몰고온 영향력은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다. 현재 교보문고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50% 이상 뛰었고, 영풍문고는 30% 이상 올랐다.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느낌표〉 '부산편'에 특별 출연한 부산 영광도서 사장이 "〈!느낌표〉 제작진에 무릎 꿇고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부분의 같은 업종 종사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KBS 〈TV, 책을 말하다〉의 오진산 책임프로듀서는 "최근 일부 언론이 보여준 반응은 너무 즉자적이고 엄숙주의적인 측면이 있다. 서로 영역이 다른 방송과 출판이 만나면서 일시적인 부작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현재 〈!느낌표〉의 사소한 흠에 집착하기보다는 독서운동을 활성화한다든지, 출판시장을 두텁고 튼실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좀더 거시적인 틀에서 독서 분위기를 이끌어나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느낌표〉와 책읽는 사회 만들기 시민운동측이 공동으로 독서운동을 기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어쨌든 현재의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느낌표〉는 출판계에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앞으로 도서선정위원 명단 공개의 여부, 같은 책을 한달 이상 소개하는 진행원칙의 문제 등 논란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이런 문제는 향후 방송계, 출판계, 언론계, 서점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이 〈!느낌표〉를 바라보는 출판계의 중론이다.

— 강성민 기자